

목양칼럼

갈터, 안 갈터?

충청도에서 8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충청도 말이 길고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짧고 의미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춤 같이 추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출터?” 하면 상대방이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또 “보양탕을 먹으십니까?” 라는 질문은 “혀?”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가시겠습니까?” 라는 긴 문장은 “갈터?” 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서 몇 번 “갈터?” 라는 말을 사용할 터인데 무례한 말로 여기지 마셨으면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갈터, 안 갈터?

오늘 오후 예배는 러시아어권 설립 1주년 예배로 드립니다. 가족 안에 돌잔치가 있다면 웬만하면 다 갑니다. 러시아어권 예배의 설립 첫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축하하고, 다민족 선교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합시다. 그런 예배 갈터, 안 갈터?

내일 한마음 축제에 갈터, 안 갈터?

내일은 일 년 동안 설렘(?) 기다린 전교인 한마음 축제입니다. 1-4부 예배, 교육부 예배, 청년 예배,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러시아어권 예배로 나뉘어 있는 우리 모임이 한마음인 것은 내일과 같은 모임에 함께 함으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제 갈터, 안 갈터?

토요일 선교 바자에 갈터, 안 갈터?

오는 토요일은 선교바자회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취에는 선교라는 방법이 큰 역할을 합니다. 모두들 벌써 이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참 아름답습니다. 아무튼 10개 팀으로 나가는 올 여름 단기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은 이번 토요일 선교 바자에 함께하시면 됩니다. 그런 바자 갈터, 안 갈터?

세상 여정 끝나고 천국에 갈터, 안 갈터?

우리의 세상 생활은 눈물 골짜기를 비롯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소망은 이 세상 여정이 모두 끝난 후, 눈물 없는 천국에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 갈터, 안 갈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4340, 4344, 4347 中文 (347)965-0343 Fax (718)358-7789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O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아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소유영/유치부 (917)318-7030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평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명화/중등부 (703)819-8785	배인규/청년부 (917)736-3429
	최진식/ (646)887-7419		
직원	정진규/관리 (718)939-0005	홍현숙/서무 (201)759-0820	신성근/방송 (929)204-6868
찬양대	1부 예배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예배 / 호산나 찬양대	3부 예배 / 시온 찬양대
	지휘 / 소유영	지휘 / 최진식	지휘 / 윤원상
	반주 / 최미희 이승은	반주 / 송소영 김보라	반주 / 윤원주
		Shen de Guia/OPEM	4부 예배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경희
			반주 / 김정윤 임세현



주후 2017년 5월 28일
제 43-22호

주일예배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오인수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80	1,3부 / 다같이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2,4부 /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김수산 장로 2부 / 김원도 장로 3부 / 정길표 장로 4부 / 송동울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에베소서 6:10-20	사회자
찬양	CHORUS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임마누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인생은 전쟁이다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348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559/1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주일 저녁 예배

러시아권 설립 1주년 기념 예배

오후 4:00 (5/28/17)	사회: 정길표 장로
경배와 찬양	다같이
예배선언	사회자
찬송	210 다같이
기도	레오니드김 목사
성경봉독	블라지미르 란 형제
	사무엘상 7:11-17
찬양	찬양대
말씀	송요한 목사
내 교회를 세우리니	
축송	글로리아 싱어스
헌금	블라지미르 안 형제
헌금기도	자리나 자매
광고	윤지현 집사
특송	G2G
축사	김성국 목사
축도	김성국 목사

QPEM English Service

12:00pm	Rev. Peter D. Kim
Praise	Congregation
Scripture	Presider
	Romans 5:5-11
Prayer	Dn. Albert Lee
Sermon	Rev. Peter D. Kim
"Knowing God and Knowing Ourselves"	

Богослужени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8:30am	Пастор В.Сон
Хвала	Все вместе
Слово из Библии	брат Владимир Лян
	1е Царств(1Sa.) 7:11-17
Молитва	пастор Леонид Ким
Проповедь	Владимир Сон
Ты доселе нам помог	

수요 기도 예배

디모데 선교회 헌신 예배

오후 8:00 (5/31/17)	사회: 손태은 교우
예배선언	사회자
경배와 찬양	다같이
기도	박상용 집사
성경봉독	최치훈 집사
	디모데후서 2:15
찬양	찬양대
말씀	김재형 목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	
헌신찬양	디모데 선교회
헌금	384 다같이
헌금기도	송인태 집사
광고	문태일 집사
찬송	216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中文堂崇拜

早上 9:30/下午4:00	司会:陈玉捷传道
赞美	会众
经文	司会
	耶(Jer.)31:31-37
证道	陈玉捷传道
	新约

새가족 환영회

이번 주는 쉽니다.

전교인 한마음 축제

일시: 5/29(월) 오전 10시-오후 5시

선교 바자회

일시: 6/3(토) 오전 8시 30분 - 오후 7시

교회소식

5월 가정의 달 - 하나님공경, 부모님효도, 자녀사랑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5/28(주) 러시아권 설립 1주년 기념 예배	5/29(월) 전교인 한마음 축제
5/30(화) 성인대학 종강 예배	5/31(수) 디모데 선교회 헌신 예배 /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6/3(토) 선교 바자회	6/4(주)에스더 선교회 헌신 예배 / 월례회

알림

- 러시아어권 설립 1주년 기념 예배로 저녁예배를 드립니다. 뜻깊은 예배에 모두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교인 한마음 축제가 내일(5/29) Belmont Lake Park 에서 있습니다. 입장식이 10시에 있습니다. 교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8시 30분까지, Park로 오시는 분들은 9시 3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 선교 바자회가 6/3(토)에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7시까지 있습니다. 깨끗한 헌옷을 기부받습니다. 라비에 주문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주문을 많이 받아오시면 정성스럽게 배 달해 드립니다.
- 2017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 안내 1) 주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자" 2) 일시: 7/2(주)-4(화) 3) 강사: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담임) 4) 장소:Hudson Valley Resort
- 아가페 400호(7월호) 기념 백일장 안내 * 대상 상품: 김치냉장고 1) 행사주제: 시와 수필, 성화, 카툰 사진 2) 기간: 6/11(주)까지 3) 문의 및 접수: 소유영 전도사, 채영주 집사, 아가페 편집부(kapcq2017agape@gmail.com)
- 특별활동위원회 신입단원 모집 1) Ainos Youth Orchestra: 기초반부터 고등부까지 상시 모집 및 오디션 진행. 문의: 김미언집사 2) G2G 어린이 선교 합창단: 9월 기준 킨더가든부터 6학년까지. 오디션: 6/3(토). 문의: 채현주권사 3) 하랑 예찬: 9월 기준 킨더가든부터 5학년까지. 오디션: 6/3(토). 문의: 이정훈집사
- 2017 여름학교 안내 1) 기간: 7/5(수) - 8/11(금) 2) 대상: Kindergarten - 12학년(SAT Class) 3) 문의: 여름학교 사무실(210호) (718)886-4646
- 올 해 대학교, 대학원 졸업 예정자들은 각 교구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6/3(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3교구 (다음주: 4교구)
- 가족기념 장학기금 게임송, Hung Dang 교우

새가족

최성길 (여호수아 2F13), 김은지 (청년대학 1Y1)

교우소식

- 출 산 김보라 집사(김현우 집사 1F11)께서 5/23(화)에 득녀(김서연) 하였습니다.
- 세 례 박성울 교우(문옥필 집사 4F2) 5/24(수)
- 졸 업 김영일 5/18 Stony Brook University 정교은 5/23 SUNY Downstate University
- 연 주 김기호 장로 가족 연주회(다니엘의 음악 이야기)가 6/4(주) 오후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 입 원 옥영권 장로(옥선자 권사 1F3)께서 유니온 양로원 218호에 입원중입니다.
이연순 권사(이명구 모친3F1)께서 NJ, St.Mary 병원 417호에 입원중입니다.
최명숙 권사(3FM4)께서 뉴욕병원 ICU에 입원중입니다.
- 소 천 박민정 집사(박철홍집사 3WCT)의 부친 성철호 장로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시어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금식기도사

- 주 / 정재운 윤원상 윤현주 남형욱 김지은 박은혜
월 / 정길표 정경애 정진웅 정은정 박은혜
화 / 권오창 김도완 서지훈 박은혜
수 / 김서희 권오창 이숙규 최지혜 박은혜
목 / 윤순자 정한국 전인자 김동순 조제인
금 / 윤순자 정한국 전인자 김동순 조제인
토 / 이정훈 민미숙 이경미 정성숙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오후	오후 04:00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4:00	
	러시아어	오전 08:30	고등부실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6:3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314	러시아어 예배	14	영어부	39	중등부	55
2부 예배	345	청년 선교부	82	유아부	47	고등부	53
3부 예배	373	주일 저녁 예배	309	유치부	45	청년 대학부	41
4부 예배	180	새벽 예배	991	중국어 교육부	14	교회 학교 예배	471
영어 예배	177	수요 기도 예배	249	유년부	97	주일 낮 장년 예배	1740
중국어 예배	255	새가족 환영회	16	초등부	80	주일 낮 총계	2211

5월 봉사위원(6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김원도 장로 (임 정 장로)

헌신기도(다음주)	황인섭 장로	황주현 장로	장봉석 장로	고국환 장로
책임권사	김홍덕 권사 (이희정 권사)	김청자 권사 (박순자 권사)	최경선 권사 (허영미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이정숙 운영자 홍지혁	임승룡 이숙규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김희은 오성태 송현규 김선희 장지숙 정민영	김선의 박새롬 정형진 조희주 권동은 조한결 김서희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준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이숙규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애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서희 박새롬 조희주 권동은 신예지 박재상 조한결 정형진 송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박철홍

화요일 새가족 환영: 브리스가 아굴라 주일식사: 교포부 (다음주: 디모데/에스데)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퀀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김현(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은순(탄자니아)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 (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지승남(미국 캠퍼스) / 최동훈(케냐)

이번 주의 소요리 문답 문 98)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월 - 사도신경 / 찬송가 390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21장 1-6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러 도시의 항구를 거쳐서 가야하는 머나먼 여정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험난한 길보다 더 힘든 것은 제자들과 성도들의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는 간절한 만류였을 것입니다(4). 바울이 “성령에 매여” (행 20:22)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4) 들어가지 말라 하는 장면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도 살고자 했으면 십자가를 거부하셨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이란 원수를 죽이는 역설, 약한 그 때에 바로 강함하기에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역설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역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설,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가 아름답고 신실하게 쓰여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 사도신경 / 찬송가 445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21장 7-16절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여러 도시의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딸, 예언하는 자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라고 다시 만류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함께 가는 일행도 바울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12). 그러나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13)고 대답합니다. 즉 죽으러 가는 것이라는 대답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죽어야겠다는 고집입니다. 그제서야 일행은 가장 깊은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14).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 길을 은혜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수 - 사도신경 / 찬송가 488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21장 17-26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영하며 이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영광돌렸습니다.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바울이 어떤 환란을 만나게 될 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결례의 시간을 가지며 풀어야 할 오해들을 풀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조용한 시간 같아 보이지만 실은 폭풍 전야처럼 매우 긴장된 시간입니다. 바울은 마치 도살장 앞에 선 어린 양처럼 그저 순응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과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굳건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 사도신경 / 찬송가 352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21장 27-36절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무리를 총동하여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성전 문들이 닫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치기 시작했습니다.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가니 그들이 군인을 보고 치기를 그쳤습니다. 군인이 조금만 늦게 왔으면 바울은 죽을 뻔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바울이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제자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죽을 뻔 했으나, 주의 뜻은 바울을 보호하고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고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이 환경이나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구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 사도신경 / 찬송가 505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21장 37절- 22장 1절

바울이 천부장에게, 백성에게 말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죽도록 맞아서 정신도 없고 쉬고 싶을법도 한데 천부장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울의 머리 속에는 오로지 한 단어만 있습니다. 복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쓰라(딤후 4:2)고 한 바울의 말을 이 장면보다 잘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총대 위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백성들에게 손짓합니다. 미처 못 죽여서 분을 삭이고 있는 그들이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얼마나 긴장으로 가득한 순간입니까? 바울에게는 이 순간이 바로 자신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만류해도 예루살렘에 갔어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가정도 바울처럼 복음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 불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바칠만한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길게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 사도신경 / 찬송가 463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22장 2-23절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한 유대인들과 공감하고 설득하려 합니다. 자신이야말로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고, 당신들보다 더 열심히 예수민된 자를 핍박했던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7)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광채로 인해 볼 수 없게 되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보게 되면서 영의 눈이 떠져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도 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과정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다시 죽여버리자고 소동을 부렸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모자라 목까지 뺏겨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불쌍한지요. 그렇게 놀라운 간증을 듣고도 진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정의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움을 소원합니다. 혹시 목이 뺏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저주가 절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